

플랫아이언 스쿨(Flatiron School)

1. 개요

2012년 뉴욕 맨해튼에서 설립된 학교이다. 플랫아이언 스쿨은 미국에서 가장 뜨는 프로그래밍 스쿨 중 하나이고, 민간 직업 교육 기관으로 **학생들에게 단 12주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적성이 맞지 않거나 보수가 낮아 고민하던 직장인이 많고, 프로그래밍에 완전 문외한인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2. 특징

대학에서는 이론과 원리를 많이 가르치지만 정작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플랫아이언 스쿨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 직접 만든 교육 과정을 들고 30개 이상의 기업을 찾아가 가르쳐야 할 것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즉 **불필요한 학습은 줄이고,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만을 짧은 기간안에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수업 방식

학생들은 **4~5명씩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사와 학생의 비율은 1대 7 정도이다. 이렇게 주로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하면 강사들은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곧바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또한 플랫아이언 스쿨의 학생들은 매일 9시간씩 12주 동안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수업은 코딩 교육을 포함해 웹과 iOS 과정 등을 가르친다**.

4. 장점

플랫아이언 스쿨을 나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린다. 졸업생들은 온라인 결제회사 벤모, 미디어 기업인 엑스오그룹, 뉴욕타임스 등의 회사에 취업했다. **취업률은 98%이고, 초봉은 최소 7만 달러(약 7200만원)이다**.

5. 고려 사항

학비가 1만 200달러(약 1230만원)으로 싸지 않고, **1년에 웹과 iOS 과정을 각각 세 번만 운영하는 데 각 과정에는 20명에서 40명 정도만이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자가 많아서 입학이 쉽지 않고, 경쟁률은 대략 16대 1 정도이다.

6. 2021년 플랫아이언 스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의 정보들 이외에 발전된 플랫아이언 스쿨의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플랫아이언은 뉴욕 이외에도 워싱턴 D.C, 시카고 등 8개 지역에 캠퍼스가 있고, 수업 코스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버 보안 분석,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추가로 온라인 과정도 존재한다. 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각 코스들의 일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링크

[Learn Coding, Data Science, & Cybersecurity | Flatiron School](#)



2014년도 플랫아이언 스쿨 프로그래밍 수업 [중앙 일보]